

## 소현성록의 서술시각과 작품에 투영된 이념적 편견

박일용\*

<차례>

1. 서론-소현성록과 관련된 편견의 두 층위
2. 서·결에 나타난 향유층의 꿈과 이념적 편견
3. 소현성록의 서술시각과 홀어머니 양씨의 소망
4. 소현성록의 갈등 구조와 모부인 양씨의 지향
5. 주인공 소경의 이념과 현실 사이의 거리
6. 결론

<국문초록>

소현성록은 남주인공 소경에게 투영된 어머니 양씨의 소망과 이념을 바탕으로 창작된 소설이다. 소경의 모친 양씨는 다처제적 질서의 질곡을 몸소 체험한 여인이다. 그렇지만, 외아들 소경을 통해 가문의 유지와 창달을 이루어야 하는 양씨에게 다처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모부인 양씨의 이율배반적 소망에 상응해서 소씨 가문에 다처제적 갈등이 나타나게 된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러한 양씨의 소망에 상응해서 주인공 소경이 효의 화신으로 그리고 성현을 능가하는 금욕적 인물로 형상화됨으로써 가문내적 갈등 해소의 계기를 마련한다. 이러한 모부인 양씨의 소망과 이념적 편견은, 가부장제적 질곡을 체험하면서도 그것을 벗어 나지 못하는 사대부 부녀층의 꿈과 이념적 편견에 대응되는 것이다. 장편소설의 주향유층인 사대부 부녀들은 가부장제의 질곡을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하면서도 그것을 넘어설 수 없는 현실 상황 때문에 오히려 가부장제적 이념의 이상적 실현을 통해 질곡의 해소를 꿈꾸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녀층이 즐겨 보는 장편소설들에는 가부장제로 인한 갈등이 형상화 되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서술자가 당대 사회의 이념적 편견을 바탕으로 한 가부장제 이념을 표방하는 역설이 나타나게 된다.

**주제어** 소현성록, 소씨삼대록, 이념적 편견, 가부장제, 이율배반적 소망

\* 홍익대학교 교수

## 1. 서론-소현성록과 관련된 편견의 두 층위

「소현성록」 연작은 가장 이른 시기에 창작·향유된 조선시대 장편소설로서, 그 소설사적 의의가 매우 크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리고 이에 걸맞게 최근에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되어 여러 측면에서 깊이 있는 연구 성과들이 축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작품의 기본 성격에 대해서는 대립적인 견해가 제기되어 있다.

이 작품을 ‘가문소설’적 관점에서 해석하려는 연구에서는, 소경의 세 처 사이를 갈등 관계로 파악하고, 소경이 그것을 해소하여 가문의 안정을 이루어나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라 해석하였다. 소경이 가부장권을 확립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가문창달 의식을 표현한 것이라 본 것이다. 반면, 이 작품을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해석하려는 연구에서는 주인공 소경과 그의 세 부인 사이를 주된 갈등 관계로 파악하였다. 그리하여 ‘가부장 소경이 금욕적인 예교적 태도로 가부장권을 확립하려 하자 다수의 부인들이 강하게 저항하여 그가 오히려 부정의 대상으로 전락되는’ 과정이 형상화됨으로써, 이 작품이 “여성주의적” 시각을 표현하였다고 보았다.<sup>1)</sup>

1) 이러한 양상은 이 작품을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해석한 정창권의 다음과 같은 주장을 통해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박영희는 작품의 성격을 파악함에 있어서 그 자체의 특성을 고려하기보다는 남성 독자층인 권섭과 주변 인물들의 이념적 성향에 주목하여, 이 작품을 여타 소설에 비해 더욱 보수적이고 체제 내적인 시각을 고수하는 교훈서의 일종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실제 갈등 분석에서도 남성 인물들을 영웅시한 채, 여성대 여성의 갈등인 처-처 갈등으로 해석하여 가문의식으로 수렴하였다. 그러나 이 작품은 물론 가문소설처럼 서사적 배경을 ‘집’에서 마련하여 ‘가족’을 문제 삼고 있지만, 가문소설처럼 저마다 가문의식에 긴박되어 가부장제 가문주의를 구현하고 있지는 않다. 이 작품은 오히려 남녀 간의 부부갈등을 주제로 여성들의 자존의식을 표출하거나 그녀들만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논문심사 과정에서 “여성주의”라는 용어 사용에 대해 좀 더 신중한 고려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 논문에서는 선행연구자가 사용한 개념과 용어를 그대로 적시하기 위해 사용했음을 밝힌다. 정창권, 「소현성록의 여성주의적 성격과 의의」, 『고소설연구』 4집, 한국고

한편, 최근에는 소현성록<sup>2)</sup> 연작 가운데 ‘본전이 여성의 입장이 드러날 수 있는 서사 및 서술지향을 취한’ 반면 ‘별전이 남성 영웅 서사를 지향’한다고 하여 소현성록에 해당하는 부분과 소씨삼대록 부분에 나타나는 서사적 지향의 차이를 읽어내는가 하면,<sup>3)</sup> 이 작품이 “여성의 투기를 경계하기 위해 다양한 인물과 모티프를 설정함으로써 표면적으로 여성을 교화하면서도 이면적으로는 다처제하에서 겪는 여성의 질곡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고 이 문제를 작품의 양면적 성격으로 해석하여, 해석의 대극성을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아우르는 성과가 이루어지기도 했다.<sup>4)</sup> 이러한 후속 연구 그리고 최근에 고전연구학회에서 이루어진 다양하면서도 집중적인 연구를 통해 작품 이해 시각의 거리가 상당히 좁혀졌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동일한 작품에 대해 이처럼 대극적인 해석이 나온 이유가 만족할만하게 설명되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필자는 이 문제가 소설 작품을 작가의 의도적이고 의식적인 주제의식의 표현물로만 해석하려는 선입견적 해석 태도와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

소설학회, 1998, 298쪽.

- 2) 이대본 소현성록 15권의 제목은 소현성록으로 되어 있다. 물론 이 소현성록은 1권에서 4권에 이르는 이른바 소현성록에 해당하는 “본전” 부분과 5권에서 15권에 이르는 “소씨삼대록”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서문의 말미에 “공의 정시 별회 현성 선성인고로 슈데 소현성록이오 즈손의는 별데롤 빼서 소시슴디록이라 호고”라는 기록이 있어 실제 소현성의 사적을 중심으로 한 부분을 “소현성록”으로, 그리고 이후의 부분을 “소씨삼대록”으로 부르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하며, 선행연구에서도 그렇게 칭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소현성록이라는 명칭으로 전체 책체를 지칭하는 경우는 그것을 명시하면서 사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소현성의 사적을 중심으로 한 부분만을 지칭한다. 새삼스럽다고 생각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수정지시가 있어서 주를 단다.
- 3) 조해란, 「소현성록 연작의 서술과 서사적 지향에 대한 연구」, 『한국고전연구』 13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6. 6, 125-6쪽.
- 4) 장시광, 「소현성록의 여성 반동 인물 연구」, 『한국고전소설과 여성인물』, 보고서, 2006, 200쪽.

다. 물론 소설은 작품에 설정된 갈등 구조를 통해 현실세계에 존재하는 세계관의 갈등을 첨예하게 드러내는 장르이다. 그러므로 소설 해석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작가의 세계관적 태도로서의 주제 의식이 문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17세기 후반 이후 우리 소설사를 주도하는 소현성록을 비롯한 장편소설이나 영웅소설 또는 가정소설 등의 통속적 소설에는 작품에 설정된 갈등이 당대사회를 지배하는 편견적 지배이념에 의해 재단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 결과 갈등의 발생론적 기제와 당대의 편견적 지배 이념을 수용한 서술시각 사이에 거리가 나타나게 된다. 갈등의 원인인 지배질서에 대한 문제의식보다는 지배 질서 때문에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 틀 안에서 질곡이 해소되기를 꿈꾸는 소설 향유층의 통속적 욕구가 표출되기 때문이다. 소현성록의 갈등이 다처제라는 가부장제의 질곡 때문에 발생한 한 것임에도, 가부장제 이념의 투철한 실현을 통해서 그것들이 해소되는 것처럼 그려진 까닭은 이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들 소설에서 작가의식을 도식적으로 적출하려 할 경우, 이들 두 측면 가운데 어느 한 쪽을 자의적으로 선택하게 된다. 예컨대 갈등의 발생 기제인 다처제의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고 해석할 경우 소현성록을 가부장제에 대한 비판의식을 표현한 작품으로 읽어내게 되며, 다체제적 갈등이 해결되는 과정과 그것을 이끌어나가는 서술시각에 초점을 맞추고 해석할 경우 가문 창달 의식을 표현한 작품이라 읽어내게 된다. 물론 이처럼 거칠게 도식화하기는 어렵겠지만, 그간의 소현성록에 대한 대극적 해석들도 크게 보아 이러한 해석 틀을 벗어나지는 못한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통속적 소설들에서는 작품에 설정된 갈등구조나 서술 시각을 직접 작가 의식과 관련시키기 보다는, 소설 향유층의 처지 및 소망과 작품에 형상화된 인물과 갈등 구조의 전개 양상을 대응시켜서 작

품의 의미를 섬세하게 읽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소현성록에서는 소설 향유층의 지향이 가부장제 이념의 질곡에 시달리면서도 그것의 실현을 통해 가문의 안정과 창달을 이루려는 고단한 홀어머니의 꿈을 매개로 하여 표현된다. 그 결과 표면적으로는 엄정한 유가 이념을 지향하면서도, 그것이 홀어머니 양씨의 사적 욕망과 결합됨으로써 주된 갈등의 축과 서술시각 사이에 나타날 수 있는 간극이 섬세한 모습으로 표현된다. 최근의 연구에서 여러 연구자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이 작품의 의미를 주목한 것도 이 때문이라 생각한다.<sup>5)</sup>

본고에서는 소현성록에 나타나는 소설 향유층의 지향으로서의 홀어머니 양씨의 꿈을 매개로 하는 서술시각의 특징<sup>6)</sup>, 그리고 그러한 홀어머니

5) 수정 지시 가운데 “이 연구에서 말하는 소설 향유층은 독자를 의미하는 것인가? 작가 의식을 문제 삼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작가는 향유층에서 제외되는 것인가? 또한 모부인 양씨의 사적 욕망을 향유층의 의식으로 연결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의문을 제기하였다. 향유층은 물론 작가와 독자를 아우르는 개념이다. 그런데도 이 논문에서 특별히 “도식적인 작가의식” 추출을 문제삼은 것은 통속 소설의 경우 “작가의식”과 “독자층의 통속적 욕구”를 특별히 구분해 내기 어렵고 그것을 구분하여 “작가의식”만을 문제삼을 경우 작품을 오독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시를 한 심사자는 아마도 이전에 소현성록에 대해 연구 업적을 낸 연구자라 생각이 되는데, 선행 연구 업적에 “편견”이 개입되었다고 진술한 서론의 태도에 대해 심기가 몹시 불편했던 것이 아닌가 느껴진다.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예써 이런 표현을 한 까닭은 이 논문이 “편견”과 관련된 특징의 한 부분으로서 논문을 어떻게든 “편견”과 관련지으라는 학회 측의 주문 때문이었다. 거듭 미안함을 밝힌다.

6) 주 5에서 언급한 수정 지시에 이어 “용어의 애매성은 ‘이념적 편견’이라는 용어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서술 시각’이라는 용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3장의 논의가 ‘서술 시각’이라는 말을 사용하였을 때 그 특징이 잘 드러난 것이 무엇인지 의문이다. 단지 ‘모부인 양씨의 사적 욕망의 형상화 과정(?)’ 정도여도 되지 않을까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소현성록에서 “모부인 양씨의 사적 욕망”은 가부장제의 틀 안에서 가부장제의 질곡이 해소되기를 꿈꾸는 가문소설 향유층 일반의 이율배반적인 꿈을 대변하는 서술시각에 녹아들어 나타난다. 이 논문에서 “이념적 편견”이라 지칭한 것은 이러한 소설 향유층의 이율배반적인 의식을 지칭한 것이고, 서술시각이란 용

의 꿈과 결합된 편견적 기부장제 이념과, 기부장제의 질곡 사이에 나타나는 간극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소현성록을 읽기로 한다.

## 2. 서·결에 나타난 향유층의 꿈과 이념적 편견

이화여자대학본 소현성록에는 작자를 자칭하는 인물들 명의의 “소승상본던 별서”가 있고, “본전”의 끝인 4권의 말미에는 ‘결’이라 칭할 수 있을 법한 내용이 덧붙여져 있다. 작품을 분석하기 전에 우선 이들 서와 결에 해당하는 글을 살펴보면, 창작 배경과 향유층의 지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소승상본던 별서”는 작품의 주인공 소경에 대한 소개 그리고 그것을 짓게 된 경위와 의도를 밝히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주인공 소경을 소개하는 대목에서는, 소경이 활동한 시대와 벼슬, 그리고 이름과 자를 소개한 후에, 그가 일월의 정기와 천지의 조화를 타고 나서, 가슴 속에 경천위지할 뜻을 품고 미목 가운데 나라를 편안하고 바르게 할 재주를 지녔다고 예찬한다.<sup>7)</sup> 그리고 이어서,

---

어를 사용하여 양부인 개인의 욕망과 향유층의 의식을 구분하려 한 까닭도 이 때문이다. 만일 이 논문이 특집이 아니었다면 시간을 확보하여, 이주영 교수가 서울대소장 21권본 소현성록과 이대본 소현성록의 차이를 적시하였듯이, 이들 이본의 차이를 적시하면서 가문소설 향유층의 일반적인 이념적 편견과 양씨 개인의 욕망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다 상세하게 분석하고 싶었다. 또, 5장 “주인공 소경의 이념과 현실 사이의 거리”에서 소경과 석씨 사이에 나타나는 갈등을 상세하게 분석하여 소경의 이념이 갖는 관념성을 보다 실감나게 다루고 싶었다. 그러나 필자 개인 사정으로 이러한 작업을 충분히 할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 채 억지로 발표하게 되어 필자 본인으로서도 몹시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주영, 「소현성록 인물형상의 변화와 의미-규장각소장 21장본을 중심으로」, 『국어교육』 98,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98.

7) 대승 태종 시절의 강능후 겸 구석 참지정스 농두각 티혹스 쇼공의 명은 경이오 즈는 즈문이라 성성흐티 산천순돈과 일월정기며 텃디조화를 타 나 흥격의 경천위지홀 뜻

귀 가의 유순 활연하고 편모 효양을 정서의 못 밋춘디 업스니 비록 넷 증 자라도 이에 더나디 못홀 비오 우에 동귀와 공경 셔모 흐며 티가지절이 혼 굴긋고 위 삼탄에 니르디 청현하고 검소흐야 의복이 슈비하고 성품이 고요 흐야 벗 사괴기를 폐흐니 평성 친봉이 십인의 지나지 아니코 녀식을 더러이 너겨 매일의 당의셔 분향하고 글을 넘어 문니를 더욱 힘쓰고 형실을 닷가 뭍은 도학이 제 뉴의 특출하고 혼자 곳 테즈흐며<sup>8)</sup>

이와 같이 치가지절과 금욕적인 생활 태도에 초점을 맞추고 소경의 행적을 간략히 서술한다. 그리고 “오복의 흠홀거시 업더니 향슈를 기리 하고 텃당의 도라ㄴ니”라고 하여, 개인적 욕망 실현 양상에 초점을 맞추어 그의 삶을 표창한다. 이는 소현성록이 주인공 소경의 효와 치가지절, 그리고 금욕적인 생활 태도에 초점을 맞춘 작품임을 말한 것이다.

그런데, 창작 경위를 설명하는 대목에서는 작자를 자칭하는 조종과 여이간이, 소경의 집안이 삼대 노신임을 고려하여 왕의 예로 장사하고 시호를 “충렬공”이라 하고 비문에 “효의(孝義) 선생”이라 새긴 후, 소경의 행록을 지으라는 인종 황제의 명을 받아 소현성록을 지었다고 이야기한다.<sup>9)</sup>

이 말을 따르면 황제가 소현성록을 지으라 명한 까닭은 “충렬공”과 “효의(孝義) 선생”이라 칭할 만큼 소경이 충과 효 이념을 이상적으로 수행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편찬 목적에 충실하려면 소현성록은 가문 외적 층위에서 이루어지는 충의 이념 실현이 주가 되고 가문 내적 층위에서 이루어지는 효 이념의 실현이 부차적이거나, 아니면 이 둘이 대등한 정

을 품으며 미목동의 안방 당국홀 지죄 이서

8) 이대본 소현성록 권1. (이하 특별히 적시하지 않고 인용하는 경우는 이대본을 지칭한다)

9) 인종 황제 그 삼대 노신인줄 슬허흐샤 왕네로 장하고 묘호의 사당 지어 스시로 제하며 시호를 통렬공이라 하고 비문의 사기디 효의 선성이라 하시니라 날이 오라도록 생각흐샤 이에 혹사 도종과 상셔 녀이간 등으로 그 형적을 기록하라 하시니(소현성록, 권1)

도로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실제로 소현성록은 가문 내에서 이루어지는 주인공 소경의 효 이념의 실현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편찬 경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조종과 여이간은 황제의 명을 받고 소부에 가서 소현성의 행적을 조사하고 효문서(孝文書)를 해독하여 소경의 전을 지었다고 한다. 만일 가문 외적 행적을 중심으로 소경의 행록을 서술하려면 일차적으로 국가의 공적 기록을 사료로 취해야 할 터인데, 그들은 효문서(孝文書) 등 집안에 전해오는 사적 문서와 구전을 바탕으로 소경의 행적을 조사했다는 것이다.

물론, 효(孝行)는 부자 사이의 사적 관계를 규정하는 윤리이면서도 중세 체제를 지탱하는 데 필수적인 공적 이념이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효행이 가문 밖으로 드러나기가 어렵다. 예컨대, 조선시대에 효 이념을 표창하기 위해 효자비를 많이 세웠지만, 그 경우 대부분 효행이 밖으로 알려질 만큼 특별한 모습을 지닌 경우가 많았다. 또 장편소설에서도 효가 부각되는 작품들이 있지만, 그 경우 대부분 효행이 가문 밖으로 부각될 수 있는 극적 계기를 갖기 마련이다. 예컨대, 유효공선행록이나 창선감의록에서는 패륜적 부모가 자식을 제거하려는 사건을 벌였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라도 부모의 잘못을 감싸려는 주인공의 효심이 가문 밖으로 부각될 수 있었다. 그런데, 소현성록에서는 소경의 모부인 양씨가 소경보다도 현철한 인물로 그려진다. 그러므로 소경의 효행이 가문 밖으로 부각될 수 있는 특별한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소현성록 서문의 작지는 황제가 소현성의 효를 기려 소현성록을 짓게 하였다고 말한다.<sup>10)</sup> 이는 사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소경의 효행

10) 이인이 서로 널오더 거가의 소소헌 일을 다 알기 어렵다. 효여 본부의 가 공의 출세헌던 근본으로 부터 종신히 일을 녀너히 일거 효문서를 어더너여 쵸노고 희독헌기를 세세히 효야 단을 지오더 공의 회노와 언시 적고 형실이 놓기로 사툼으로 효여금 이 단을 보면 송연히 공경헌나 빛나며 화려헌 어조이 업는고로 그 즈식의 쇼열을 지어

을 공적 담론 형태로 바꾸어 전달 효과를 극대화 하려는 서문 서술자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창작 소회를 서술하는 말미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sup>11)</sup>

서문의 말미에서 글쓴이는 세상에 이들 작품을 전하는 까닭이 “사람의 어미가” 되어서 자식에게 소경과 같은 효행을 권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 한다. 주목할 것은 조종과 여이간이 작품을 창작하면서 붙인 서문의 형식의 글에 이처럼 전승자의 입장에서 전승 목적을 서술하는 내용이 등장한다는 점이다. 글쓴이는 황제의 명을 받아 소경의 효를 표창하기 위해서 창작을 하였다고 하면서도, 자식에게 효를 권하기 위해서 이들을 전승한다고 하여, 창작의 의도와 전승 의도를 각기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다. 이는 애초 이 작품의 창작 의도가 표면적으로 표방된 소경의 행적에 대한 공적 표창이라기보다, “어미”된 입장에서 자식에게 바라는 효에 대한 소망임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sup>12)</sup>

이렇게 보면, 오히려 이러한 사적 소망이 오히려 애초의 창작 배경이고, 앞에 서술한 창작 경위는 이러한 사적 소망을 공적 이념의 표창 형태로

---

번화를 돕고 공의 성시 별회 현성 선성인고로(소현성록, 권1)

11) 슈데 소현성록이오 즈츠의는 별데를 뼈 소시삼더록이라 호고 여러권 설화롤 세상의 전호른 대개 사롬의 어미되야 공의 효행갓뜰 권호미라 희라 이 설화롤 보면 방탕 무식호야 부모 헤디 아닛는 불효존들 감동티 아니라. 경오 십팔년 추칠월 십삼일의 도혹스 녀상서는 만세 슈명호야 작 현성록 호니 뉴던 천슈로다(소현성록, 권1)

12) 여기서는 향유층에 대한 기대의 주체를 “어미”로 설정하고 있다. 이 문장의 주어는 글쓴이인 조종과 여이간이다. 그런데도, 이처럼 기대의 주체가 “어미”로 설정되기 때 문에 비문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장의 형식을 떠나서 의미 차원에서 볼 때, 이 문장의 내용은 오히려 작자 자신들의 지향성을 솔직하게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이를 효행이 등장하는 소설들의 필사기에 등장하는 필사자의 말 정도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내용이 스스로를 황제의 명을 받아 소현성록을 지은 작자로 자칭하는 사람들의 서문 형식 속에 등장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처럼 범상한 감상 정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포장하기 위한 허구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다. 소현성록이 조종과 여이간 이 황제의 명을 받아 지은 것이 아님이 분명할진대, 이러한 창작 배경에 대한 진술 내용은 소경의 행적이 지닌 이념적 이상성의 의미를 극대화하기 위해 설정한 허구라 할 수 있다. 효라는 유가 이념의 실현을 매개로 소경의 개인적 삶을 공적 이념 실현의 형태로 포장하려는 글쓴이의 이념적 편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처럼 소현성록의 서에서는 이 작품이 공적 이념 실현의 양상을 표창한 것이라 하면서도, 실제로는 사적 소망을 반영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는 소현성록에 해당하는 부분의 말미에 덧붙은 서술자의 총괄적 진술을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세월이 뉴슈갯햐야 즈네 당성햐니, 승상이 너비 구햐야 각각 아름다운 비 필을 엇게 햐고 두 부인으로 화락햐며 낭미로 화우햐고 셔모를 공경햐야, 모전의 효를 지극히 밧뜨려 비록 나히 쇿햐나 모친 안전의난 몸가지기를 아 햐갯디 햐며 신정과 혼정이 게어르미 업셔 일시도 께티 아니며, 양부인이 오디 손갯지 보디 가스를 노치 아니니, 화, 석 두 부인이 쏘햐네문을 넘고디 아냐 방중의 춘만햐 것도 스스 지물과 그르시 업셔 다 양부인긔 드려 고통의 너햐다가 승상과 즈가의 빨 고디 이시면 취품코 어더뜨며 무릇 금슈 능라를 어더드 다 고향의 너햐 빨고시 이시면 고향 후 임의로 내야 썩니 가뉘이 다 의구햐 일노 아디 스지를 머무로면 시예라도 요상햐 너기디라 이러므로 양부인이 스절노 식부와 낭녀를 불러 석포로 햐여곰 고틀 열고 이파로 죠햐능나를 고틀혀 너햐 안전의셔 스부인으로 햐여곰 너의를 밀라 손의들의 오지 이츄로햐 시너로 지으라 맞디 지은 후 주디 반춘도 츄등이 업스디, 오직 윤시 친개 업고 사지 업셔 응접햐 리 업는고로 더욱 괴렘햐야 햐츄식 도도와 쥬시니 그 성덕이 이 갯튼지라 네 부인이 몸이 한가햐고 귀운이 한햐햐야 동으로 모드며 셔호로 노라 스스로 햐는 일이 업고,<sup>13)</sup>

인용문은 소현성록에 해당하는 부분의 말미에서 소경이 이루어낸 치과의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서에서는 이 작품이 황제의 명을 받들어 소현성의 생애를 기술하였다고 했는데, 위의 내용은 소현성에 대한 기록은 극히 일부이고, 대부분 모부인 양씨와 나머지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져 있다. 이 대목을 소현성록의 결미라 했을 때 과연 이 작품이 소현성의 생애를 중심으로 한 것인가가 의심이 될 정도이다.

또 주목할 것은 소경이 가부장이 된 이후에도 소씨 가문의 질서가 소경의 모부인 양씨를 중심으로 짜여 있다는 것이다. 소경은 나이가 들어 쇠할 때까지 효성을 다하여 모부인 앞에서는 행동거지를 어린 아이처럼 공손하게 하였다 한다. 그리고 모부인 양씨는 “오대손”을 볼 때 까지 가사를 놓지 않고 가문 내의 모든 일을 주관하는 한편, 소씨 가문의 여인들은 양씨의 지시대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며, 특히 소경의 처들과 누이들은 양씨에게 효성을 다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보면 소현성록에 형상화된 주인공 소경의 삶은 모부인 양씨를

---

13) 이어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화시 비록 승상의 원비나 의복의 간네치 아니코 더긋의 슈를 헤이려 부인 안전의셔 석포 등으로 더부러 주찬을 도을 쓰담이오, 소, 윤은 즈가 당부의 더긋은 시녀를 맞디고 아르미 업셔 다만 당복과 관복을 시네 잘 못홀가 햏야 스스로 지은 밧근 종일토록 시스를 창화호고 박혁으로 쇼일햏야, 시인의 티와 풍아의 거동이 이시디, 홀노 석시는 더긋의 아롬이 업고 칠선의 간예치 야나, 비록 부인이 절복을 말나 주나 시녀를 맞디 일우게 호고 스스로 부인 식봉을 밧들며 의복을 몸소 가음이라 신입햏야 피셔시니 그림지 얼꼴을 좃듯하니 비록 나히 늘그나 성정이 쇠디 야나 효를 혼갈궤햏지라 부인이 자연 중요롭고 둥히 여기미 화셋기 더으며 여러 십년을 피시디 일호 미진한 일을 보디 못호나 양부인이 안전의 맛당함을 엇고 승상기 허믈을 피지 아니니 가히 석부인의 현절함을 알니러라. 승상이 모친을 천년으로 쯡호호고 벼술이 제후의 이셔 공적을 즈로 세우고 쉬 팔십이 넘은 후 기세 햏니라. 두 부인이 니어 도라간 후, 즈손이 번성햏야 관명이 쑥지 아니며 낭지 님샏호고 칠디를 년햏야 황각의 깃드리니, 후인이 유시 찬왈 평성의 도덕 승검호고 공근절차햏야 적션어음이 홀너 즈손의 문을 놓히니 칠디 정승이 나믄 효형과 정덕함을 창턴이 조우호고 신명이 감동햏더라.” (소현성록, 권4)

중심으로 안정된 가문의 질서를 구축하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서문의 말미에서 이 작품의 창작 배경을 “사림의 어미되야 공의 효행갓트를 권히미라”고 한 서문 기술자의 말에 적확하게 대응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 소현성록에서는 유가 이념의 실천이라는 공적 행적을 예찬하는 시각이 표면화되지만, 그것이 홀어머니 양부인의 사적 욕망이 투영된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이 공적 이념으로서 유가 윤리와 사적 지향으로서 홀어머니의 꿈의 결합 양상과 의미에 대한 이해는 소현성록 해석의 열쇠에 해당하리라 생각한다.

### 3. 소현성록의 서술시각과 홀어머니 양씨의 소망

소현성록에서 주인공 소경의 어머니 양씨는 홀어미가 되어 가부장제의 질곡을 전형적으로 체험하는 여인이다. 그러면서도 가문의 몰락을 막고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유가 이념에 입각한 교육과 치기뿐임을 명백히 인식한다. 그리하여 자식들에게 가혹하리만큼 철저하게 유가 이념을 강요한다. 향유층의 지향을 대변하는 이러한 양부인의 사적 소망과 편견적 이념이 정교하게 교합되어 소현성록의 서술시각을 이룬다. 여기서는 이 작품에서 이러한 모친 양씨의 관념적 이념과 소망이 교합되어 나타나는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소현성록에는 여느 작품처럼 서두에 주인공의 가문과 부모에 대한 소개 그리고 주인공의 출생 과정이 설정된다. 그리고 주인공 소경이 가문의 혈통이 절멸될 상황에서 기자치성 과정을 거쳐 태몽을 얻고 출생하여 탁월한 자질을 발휘하면서 성장한다는 점에서, 여느 장편소설 또는 영웅소설의 서두와 그리 달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소현성록에서는 주인공 소경의 출생과 성장 과정을 그리면서, 특별히 모부인 양씨의 처지를 부각시킨다.

서술자는 양씨의 남편 소광이 태도가 준엄하여 신선 같았으며, 청정한 산인(山人)이요 기이한 처사였다고 한다. 그러면서 부부가 동락 십여 년에 부인은 남편이 농담하거나 노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남편은 부인이 크게 소리 내어 웃거나 제멋대로(顛倒히) 말하며 성내여 소리 높이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고 한다. 또 출입할 때는 반드시 서로 일어나서 맞고 보냈으며, 집안사람들이 한 번도 부부가 같이 앉아 있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한다.<sup>14)</sup>

이처럼 서술자는 서두에서 소광 부부가 서로에게 깍듯이 예를 갖추었다고 이야기 한다. 그렇지만, 신선처럼 준엄하였다는 가부장의 위세를 감안한다면, 이러한 진술은 부인 양씨가 가장에게 거안제미(擧案齊眉)의 예를 갖추듯이 깍듯이 예를 갖추고 전전공공하면서 살았다는 말로 읽혀질 수 있다.

이는 이어지는 상황을 통해 확인된다. 양부인은 남편이 팔대 독자로서 삼십이 되도록 골육이 없어서 주야 슬퍼하는 것을 보고, 아들을 낳으려고 석씨와 이씨를 첩으로 들인다. 그래도 후사를 얻지 못하다가 스스로 장녀 월영을 출산하며, 다시 차녀 교영을 낳는다. 그러자 남편이 “분향하야 죽턴하다”가 “향노를 박차고 탄식 오열하”며 “하늘이 었디 내게 홀로 적악을 누리오시나노 십스연을 기다려 문득 두 딸을 연하야 나흐니 일신 후사와 조상 혈식을 뉘게 의탁하리오”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한다. “사름 가온디 신선”으로서 “동낙 삼십년”에 “희롱하며 노함을 보디 못흔” 남편이, 이처럼 향로를 박차고 하늘이 자신에게 적악을 내렸다고 통곡하였다는 것은 단지 자신의 슬픔을 표현한 것만으로 읽히지 않는다. 팔대독자의 후사를 잇기 위해 두 첩을 얻어주기까지 하고도 연하여 딸을 낳은 양씨에게는, 하늘을 원망하는 남편의 통곡이 자신의 “적악”을 질타하는 우레처럼 들리

14) 이러한 내용이 21장본 서울대본에는 생략되고 있다.

지 않았을까?

그 뒤 태몽을 얻고 양씨가 회임을 하는데, 칠삭 만에 나이 겨우 삼십이 된 남편이 홀연 득병하여 죽는다. 이제 복중의 아이를 낳아 소씨 가문의 후사를 잇는 것만이 청상인 양씨의 존재 이유이다. 이러한 양씨의 처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상중에 육즙을 마실 수밖에 없었던 삽화가 설정된다.

양씨는 소상을 마치고 설위하며 제사를 지내다가 한 달이 지나서 기력이 진하여 목숨이 위태롭게 된다. 그러자 복중의 아이가 상할까 두려워 육즙 한 그릇을 들고 관 앞에 나아가서, “내 이제 투싱흐미 아니라 항혀 복둥이 남질진디 소시 후스와 군의 녁흔을 위로홀거시오 설스 여자라도 쏘흔 니 몸이 보전혀야 군의 삼년 제사와 슬하 유틈를 거두리라 임의 독디 못홀진대 쏘흔 보전할 거시므로 스스로 기운을 짐작혀야 부디티 못홀 줄 알고 육즙을 느아오니 정녕이 알미 있나냐” 하며 실성통곡하고 육즙을 마시고 기운을 차린다. 그리고 돌아와 제사를 받들고 치가를 더욱 엄정히 하다가<sup>15)</sup> 소경을 낳는다.

이처럼 혈통이 절멸될 상황에서 유복자 소경을 출산한 양씨에게는 가문의 몰락을 막고 소경을 통해 가문의 안정과 창달을 이루어내는 것이 그의 의무이며 유일한 꿈이다. 그러기에 그녀는 가부장제의 질곡을 누구보다도 처절하게 체험했으면서도, 가문의 몰락을 막기 위해서 가문 내에 가부장제적 유가 이념을 확립해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인식하고 있다. 소현성록 곳곳에서 양씨 부인이 이율배반적 태도를 취하는 것처럼 그려지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예컨대, 둘째 딸 교영이 남편을 잃고 서주로 유배되어 가는 대목에서

15) 이대본에서는 처참한 소담의 유언과 임종 장면 그리고 육즙을 가지고 영전에서 통곡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기운을 차릴 수밖에 없는 처지가 간곡하게 묘사되고 있다. 반면 서울대 21권 본에는 이 대목들이 간략하게 축약되고 있다. (소현성록, 권1; 서울대 21권 소현성록, 권1)

양부인은 딸을 안고 실성통곡하고 피를 토하며 혼절하여 거꾸러진다. 그러다 다시 깨어서 가슴을 두드리고 통곡하면서 “니 일죽 니 마음을 위로하 더니 이제 네 장춧 이리 되니 이는 차마 견디지 못홀네라. 연이나 너는 사 랫거니와 니싱이 청년의 당혹의 고향이 되니 창턴이 차마 었디 이런 일을 흐느뇨”라고 하면서 다시 기절을 한다. 이러한 모습은 남편 소광이 “크게 소리 내어 웃거나 제멋대로(顛倒히) 말하며 성내여 소리 높이는 것을 듣 지 못하던” 서릿발처럼 단정한 양씨의 모습이 아니다. 청상이 되어 이역만 리로 유배를 떠나는 딸을 보내는 비통해 하는 홀어미의 모습일 따름이다. 그 스스로 청상으로서의 고단한 삶을 잘 알기 때문에 집안이 적몰되고 청 상이 되어 떠나가는 딸의 비극적 처지를 더욱 아파하는 것이다.

그러나, 교영이 적소에서 유장과 사통을 하고 유장이 해배되어 돌아온 교영을 찾아오는 사건이 일어나자, 석파나 월영 등이 교영의 목숨을 살려 줄 것을 간청하지만, 양부인은 교영에게 “친가의 불초여요 구가의 더러운 계집”으로서 “죽은 아버지와 산 어미에게 욕이 되고 조상에게 불행을 끼쳤 다”고 질타하면서 죽기를 강요한다. 그리고 죽은 뒤에도 선산에 묻지 못하 게 한다. 그러면서도 소경이 교영을 묻고 돌아오자 그를 붙들고 통곡을 한 다. 이울배반적으로 보이기도 하는 양부인의 행위는 가문을 유지하기 하 기 위해 자식의 목숨까지 빼앗을 수밖에 없는 그녀의 비극적 처지를 극명 하게 표현한 것이다. 사고무친한 홀어머니 양씨에게 교영의 사통은 단순 히 가문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차원을 넘어, 소경의 앞길을 가로막고 가문 의 창달을 가로막을 수도 있는 치명적 사건이다. 교영의 죽음을 강요하는 것은 단순히 관념적인 유가 이념을 고수하는 것에서 나아가, 가문의 앞날 을 위한 몸부림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소경이 모부인을 말려 누이의 목 숨을 구하지 않았다고 원망하는 석파에게 어머니 앞에서 슬픈 빛을 보이 지 말라고 권하면서, “비록 정도로 자약하시나 둥심은 슬허하시미 버히는

듯 흐”다고 말한 것은 이를 뜻한다.<sup>16)</sup>

이처럼 유가 규범의 준수를 통해 가문을 유지하려는 양부인의 노력은 이어서 아들 소경을 준엄하게 질책하는 장면을 통해서도 부각된다. 소경이 십오세가 되매 인물과 풍채가 뛰어나 모든 창녀들이 아릿다운 태도와 공교로운 말로 시첩됨을 칭하지만 물리쳤다고 한다. 그러다 친구들이 창기들을 데리고 와 놀던 중, 소경이 네 창기에게 가사를 지어주자 그들이 소경의 첩실이 되겠다고 나선다. 이를 안 양씨가 소경을 당하에 끌어내리니, 소경은 자신의 행위를 변명하면서 “티티 티가 흐시는 위풍을 썰러버리니 죄 죽어도 죽어도 소이다”고 용서를 빈다. 그러자 부인이 소경에게 “외로운 어미를 드리고 즈죄 처량하니 호화호미 가티 아니려든 과부 문당의 창악과 봉우를 어자러이 모으리오 다시 방자호미 이시면 결연히 용서티 아니리라”고 준절히 꾸짖는다. 이로부터 소경은 더욱 수행하여 “온중 단엄함이 날로 더했다”고 한다. 여기서도 양부인은 자신이 과부임을 들며 준엄하게 나무란다.

이처럼 작품의 서두 부분에 서술자는 교영의 훼손 사건과 소경의 풍류 사건을 연이어 배치하고, 그에 대해 준엄하게 대응하는 양씨의 태도를 부각시킨다. 이는 가문의 몰락을 막기 위해 자녀 교육과 치가에서 유가이념을 준엄하게 지킬 수밖에 없는 홀어머니 양씨의 처지를 독자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한 것이다.

소현성록은 이처럼 절박한 처지에 있는 홀어머니 양씨의 당위적 이념과 꿈을 바탕으로 한 작품이다. 그러기에 주인공 소경은 당연히 어머니가 요구하는 이념을 실천하여 그 꿈을 성취시켜주어야 할 존재이다. 소경은

---

16) 이 대목에 대해서 백순철, 장시광 등 선행 연구에서도 자식의 생명을 지키고 싶은 어머니의 심정과 가문의 명예를 유지해야 하는 여가장으로서의 고민이 심각하게 충돌하여 비애가 극단적으로 표출된 것으로 해석했다.

존재 자체가 양씨의 소망의 실현태이면서 가능태라 할 수 있다. 물론, 가문소설들에서 남녀 주인공의 가문창달을 위한 모든 행위는, 넓은 의미에서 볼 때 효 이념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소현성록의 특징을 이야기 하면서 효 이념을 거론하는 것이 새삼스러울 수도 있다. 그러나 소현성록에서는 특별히 주인공 소경이 어떻게 홀어머니 양씨의 소망과 이념을 실현해 나가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유아 시절 소경의 형상을 통해 보다 선명히 이해할 수 있다. 소경은 이미 두 살 때 글자를 해득하고 세 살 때는 경서를 낭낭히 외웠다고 한다. 그러나 어머니 양씨가 그의 공부가 “장원(長遠)하지 못할까 크게 근심하고 두려워” 서당 가까이 가서 책을 보지 못하게 하자, 스스로 어머니의 “넘너흐를 알고 또흐 생각호되, 내 나히 어리니 공부의 진취호미 밋부지 아니호다 호고, 다시 문즈를 닐으지 아니호”였다 한다. 그 뒤 일곱 살이 되어 부인이 비로소 글을 친히 가르칠새 “하나홀 드러 열을 통호고 열을 비화 빙을 썬다르니, 아춤다 칩을 끼고 모친의 나아가 비오미, 부인이 혼번 가르치미, 공지 일일이 삭여 들어 혼번 닐고 외오니 수고로오미” 없을 정도로 총명이 명이 기이하였다 한다.

그리고 그는 숙성하고 성효가 출천하여서, 서당에서 자다가 첫닭이 울면 일어나 세수하고 어머니 숙소의 창 밖에서 온화한 목소리로 문안한 뒤 회답을 기다려 재배하고 물러났으며, 날이 밝으면 의관을 정제하고 낮빛을 온화하게 하여 어머니 앞에 꿇어 앉아 글 뜻을 묻고, 하루 네 번 문안함과 행실이 소학에서 가르친 것보다 철저하게 하였다고 한다. 그러자 모 부인이 수행하다가 몸이 상할까 염려하여 그것을 금하니, 그는 “희이 생각호오니 조선 혈스와 모친의 비라오미 소즈 일인이라. 비록 불초호나 호희 몸이 중호은 줄 모로오리잇가 이리므로 슈신호를 심연춘빙 궂치 호여 흥혀 조고만 병이 잇서도 모친의 넘너를 썬칠가 두려호옵느니, 엇지 병이 나

도록 근노흐리잇가.”라고 하면서 어머니를 안심시키니 양씨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였다 한다.

이처럼 유년 시절 소경의 모습은 재능과 효심에서 더 이상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상화되고 있다. 그리고 자라서는 과거를 볼 뜻이 없지만 양씨가 가문을 위해서 과거를 폐할 수 없다고 하자 과거에 응시하며, 과거장에서 부모를 위해 과거에 합격하기를 바라는 다섯 선비의 글을 대필해주는 부정까지도 스스로 행한다. 이는 자신의 입으로 “모친의 비라오미 소근 일인이라”고 이야기 하듯이, 소경의 존재가 홀어머니 양씨의 소망에 대응되는 것임을 뜻한다. 그러기에 소현성록에서는 주인공 소경의 뜻과 모부인의 뜻이 다르게 나타날 수 없다. 설혹 나타날지라도 효심을 증명하기 위해 설정된 삽화일 뿐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소현성록의 주인공 소경은 홀어머니 양씨의 소망이 투영된 존재이다. 소경이 실천하는 효와 유교 이념은 그 자체로서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모부인 양씨의 소망에 대응되는 것으로서, 소씨 가문의 몰락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도이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주인공 소경이 유가 이념의 화신처럼 효 이념을 실천하는 것으로 그려지는 까닭은 이 때문이다.

#### 4. 소현성록의 갈등 구조와 모부인 양씨의 지향

소현성록에 형상화된 소씨 가문 내의 갈등은 두 단계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는 남주인공 소경이 둘째 부인 석씨를 맞이들이면서 나타난 것이고, 둘째는 소경이 셋째 부인 여씨를 맞이들이면서 나타난 것이다. 발생론적 기제의 차원에서 볼 때 이들 갈등은 모두 다처제적 가족 제도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첫째 부인 화씨나 셋째 부인 여씨의

투기 때문인 것처럼 묘사된다. 그러기에 여성의 투기를 금기시하는 표면적 서술시각의 틀을 따라 읽는 경우 이들이 동질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다처제의 질곡을 체험적으로 인식하면서도 가문의 창달을 위해 어쩔 수없이 그것을 용인할 수밖에 없는 모부인 양씨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 사이에는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 둘째 며느리 석씨는 첫째 며느리 화씨의 안타까운 처지를 이해하면서도 가문의 창달을 위해 스스로 맞아들인 존재인 반면, 셋째 며느리 여씨는 늑혼으로 인해 타의에 의해 맞아들인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씨가 보기에 첫째 부인 화씨의 투기와 셋째 부인 여씨의 투기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우선 소경과 이들 부인과의 결혼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sup>17)</sup>

첫째 부인 화씨와의 혼사는 소경이 과거에 급제하여 직사 벼슬을 제수 받은 직후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혼사는 화씨의 아버지 화평장이 소경의 외조부인 양참정에게 구혼을 한 뒤 양부인이 허혼하는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이는 화씨가 홀어머니 양씨의 아들로써 이제 막 과거에 합격한 소년 선비에 불과한 소경과 상적한 인물임을 뜻한다. 그러나, 양부인이나 소경의 가문 사람들은 소경을 현재의 모습으로 보지 않고 앞으로 기대를 충족시켜줄 기대 인물로 본다. 혼인 첫날 양부인과 소씨 부종의 사람들이 화씨를 처음 보고 실망하여 쾌한 빛이 없고 가중 노소가 다 부족하게 여겼다는 것은 이를 뜻한다.

그렇지만 그녀는 정식 절차에 따라 혼인한 여인으로서, “효봉구고호고 승순군즈흐야 예성이 즈즈흐며” “한 일도 흠홀거시 업고 본성이 민첩호여 진퇴 어긋르치미 업”이 행동을 한다. 그러므로 법도를 중시하는 양부인으

17) 임치균 교수는 이를 가문혼, 개인혼, 사회혼으로 명명하여 정식화 한 바 있다. 임치균, 「소현성록에 나타난 혼인의 양상과 의미」, 『한국고전연구』 13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6, 29-47.

로서는 불만족스러운 내색을 할 수가 없다.<sup>18)</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씨 가문에서 이처럼 화씨에 대해 만족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은 화씨와 여타 소씨 가문의 구성원 사이의 갈등을 예고하는 것이다.

이는 둘째 부인 석씨를 맞이하는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석씨와의 결혼은 소경이 호광 순무어사의 직을 수행하고 돌아와서 이부시랑을 거쳐 상서경 복야로 승품한 뒤에 이루어진다. 그리고 당사자인 소경 뿐 아니라 양부인을 비롯한 소씨 집안 여인들이 석씨의 인물과 능력 그리고 문벌에 대해 속속들이 확인 한 후에 이루어진다.<sup>19)</sup> 석씨가 모든 점에서 모든 점에서 소씨 가문의 기대를 충족시켜줄 인물임을 확인한 후 혼인을 한 것이다.

석씨에 대한 소씨 가문의 욕망은 우선 그녀의 뛰어난 용모 묘사에 투영되어 나타난다.<sup>20)</sup> 예컨대 서술자는 ‘생이 눈 들어 보매 미인이 안개 같은 머리를 지우고 구름 같은 귀밑을 다스려, 백설 같은 옥면에 홍협(紅頰)은 자태(姿態)를 머금어 달 같은 이마와 유미성안(柳眉盛顏)에 앵순호치(櫻

18) 좌우 빈각이 양부인과 치하 왈 부인이 한부인 갖튼 쏘을 두시고 금일 신비 쏘흔 당터의 쟁허는지라. 아지 못게라. 직스는 신부와 상적허니잇가. 부인이 칭샤 왈, 락양 빵이 업술가 근심허더니 이제 보미 서로 감손홀 곳이 업스니 다 첩의 형이로쇼이다. 허더라. 이럿듯 답소허더니 금외 서령하고 옥퇴 동승허미, 제각이 각귀기가하고 신부 처쇼를 녹운당의 정허니라. 신비 인허야 머무러 효봉구고하고 승순군즈허야 예성이 즈즈허니, 부인의 사랑허미 월영과 일반이오, 석과 등의 스량이 쏘흔 부인귀 누리지 아니허니, 화시 한 일도 흙홀거시 업고 분성이 민첩허여 진퇴 어긌르치미 업스니, 부인이 더욱 인중허더라(소현성록, 권1)

19) 서울대 21장본에서는 나아가서 그 결혼은 칠왕과 팔왕의 중매 및 천자의 권유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려진다.

20) 소현성록의 서술자는 인물의 형상화 방식으로서 섬세한 심리와 외모 묘사 그리고 행위 묘사를 절묘하게 조화시켜 서술자의 인물에 대한 지향성을 표현해 낸다. 최근의 연구에서 지적되었듯이, 소현성록에서는 ‘긍정적인 인물들이 미모로 거론’되는데, 물론 이는 ‘주인공은 선남선녀로 그리고 그 상대역이자 악인형 인물은 추한 외모로 설정되는 고전소설 일반의 경향과 상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소현성록에서는 여는 소설들과 달리 ‘여성 뿐 아니라 남성의 미모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언급한다. 조혜란 앞의 논문, 118쪽.

脣皓齒) 견주어 비길 데 없으니 의심컨대 계궁소아가 풍진(風塵)에 적장한 듯, 예주선자가 인간에 유행하는지라'와 같이 소경의 눈을 매개로 하여 석씨의 미모를 극찬하는 가하면, 나아가서 양부인 모녀와 석파와 이파의 눈을 빌어서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극찬을 한다.<sup>21)</sup> 이처럼 소경이나 양부인 등 소씨 가문 구성원의 눈을 빌어 석씨의 미모를 극찬하는 것은, 그들의 욕망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서술자가 석씨의 미모를 단엄한 유가적 덕성 그리고 재능과 결합시켜 묘사한다는 점이다.<sup>22)</sup> 이는 소현성록의 서술자가 가부장제 이념을 기준으로 여성을 평가함을 뜻하는 것으로, 그것이

21) 양부인 모녀가 이파와 더불어 바라보니 처음은 광채 영롱하고 풍도(風度)가 요요(夭夭)하여 낙일(落日)이 향목(香木)에 걸리고 옥토(玉兔)가 채운(彩雲)에 싸였는 듯 현황(眩慌)하여 광채 휘동(輝動)하며 자세하지 않더니, 당에 오르매 비로소 예를 마치고 좌를 이룬 후 눈을 정하여 자세히 보니 이미 하늘께 각별 품수(稟受)한 바가 강산수기(江山秀氣)와 정명지기(精明之氣) 다 기이하여 가슴에는 입사의 덕을 수장하였고 미우(眉宇) 사이에 오색(五色) 상서(祥瑞)의 빛이 영롱찬란하며 양목(兩目)은 추수의 정기 없음을 조롱하고 주순(朱脣)은 앵두의 동금을 나무라며, 세요(細腰)는 유지(柳枝)가 흔들림을 혐의로이 여기고 신장(身長)은 비연(飛燕)의 적음을 부족히 여겨 놀라되 경삽하지 않으며 풍영(豐盈)하나 비대하지 아니하여 천태만광이 태양의 빛을 가리우니, 소씨의 경복(驚服)함은 말할 것도 없고 양부인이 평생 눈이 높아 천하 미색을 묘시(藐視)하며 그 침중함이 과인하고 언어를 경동치 않더니 석소저의 미모를 보매 불승경야(不勝驚訝)하며 정신을 가다듬어 다시금 살펴보아 크게 칭찬 왈, “노첩이 비록 심산궁곡에 있으나 사람을 오히려 봄이 적지 않더니 금일 영아소저를 실로 노인이 보지 못한 바이며 또한 만고에 있지 않을 절엄(絶艷)이라. 참으로 경국지색이로소이다.”(서울대본 소현성록 권2. 현대어 표기로 바꿈)

22) 소씨 가문의 딸이면서도 교영과 월영은 미모와 덕성에서 상반되는 존재로 그려진다. 월영은 남편 한경현이 창첩과 놀아나도 전혀 투기하지 않고 숙덕을 지키며, 탁월한 미모를 지닌 동시에 석숙란의 시제를 평가할 줄 아는 뛰어난 능력을 지닌 여인이다. 반면, 교영은 실절하여 어머니로부터 사약을 받고 죽을 정도로 부도덕하면서도 미모가 떨어지는 여인으로 그려진다. 또한 모부인 양씨나 석씨는 인물과 덕성 면에서 누구와도 비길 수 없이 뛰어난 인물로 그려지는 반면, 화씨는 인물과 덕성 심지어 집안까지도 떨어지는 것으로 그려진다.

소씨 가문 여성들의 가문 중심적 시각을 대변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소씨 가문의 여성들이 거듭해서 화씨가 소경의 처로는 인물뿐 아니라 덕성까지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석씨의 인물과 덕성 그리고 재능에 대해서는 거듭해서 칭찬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들은 양부인이 소광에 걸맞는 여인이었듯이, 석숙란이 소경에게 걸맞는 인물이라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석과, 월영 등은 모부인 양씨에게 여러 차례 석숙란의 인물을 들어 소경의 재취로 맞아들이라고 권한다. 하지만 양부인은 못내 아쉬워하면서도 선뜻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나 딸 월영은 모부인이 숙란을 극찬하면서 손을 잡고 머리를 쓰다듬는 모습을 보고 “이 난 그으기 소성을 지취좌져 흐미라”고 생각한다.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석숙란을 며느리로 맞고 싶은 욕망이 간절했음을 간파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석씨를 맞아들이는 것은 소씨 가문의 욕망을 실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양씨는 숙덕을 지닌 여성이다. 그리고 스스로 팔대독자의 후사를 얻기 위해 남편에게 첩을 얻어주기까지 한 사람으로서, 다처제 또는 처첩제의 질곡이 여인들에게 얼마나 가혹한 것인지를 익히 아는 여성이다. 그러므로 가문의 욕망을 직접 드러내어 석씨를 맞아들이자고 할 수도 없는 처지이다.

화시의 동정을 보리니 화시 만일 투괴 이시면 미시 경만 못흐나 또 질투를 겸홀던디 좌히 석시를 취흐야 독자의 일성을 헛도이 늑디 아닐 거시오 만일 공순흐면 지질이 경으로 증등흐나 그 심정은 관홍홀 거시니 엇디 저근 얼굴이 밋디 못흐다 흐야 여자의 설함을 깃치리오 낭홍의 비상흔 용모로디 명광의 더로운 얼굴을 만능는 후세에 군즈 숙인이 되야시니 내 다만 화시 인물을 슬리고 얼굴을 이르디 아니리라<sup>23)</sup>

---

23) 소현성록 권 1.

이는 월영의 권고를 거절하는 양씨의 말로, 투기하는 마음이야 누구나 있음을 잘 알면서도, 욕망보다는 덕성을 내세울 수밖에 없는 양씨의 난처한 처지가 섬세하게 표현된 것이다. 화씨의 행태를 보아 재취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양부인의 말은 자신의 속내를 편견적 이념으로 덧씌운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가문이나 개인의 욕망을 직접적으로 들어내기 어려운 양씨의 입장을 대리해서 소씨 가문의 욕망을 드러내는 존재가 석파와 월영이다. 석파는 소씨 가문의 일원으로서 양씨를 주인처럼 섬기면서 자신의 역할과 위치를 명확히 인식하는 여인이다. 월영 또한 스스로 가부장제의 질곡을 당위로 받아들이면서, 출가한 후에도 친정에서 기거하는 여인이다. 그러기에 이들은 양씨와 달리 가문의 욕망을 거리낌 없이 표출할 수 있다. 그래서, 석씨와의 재취를 권함으로써, 석파가 양씨를 대리하여 화씨와 갈등을 일으키고, 월영은 석파의 동조자 역할을 한다. 만일 이러한 대리자들이 설정되지 않았다면 소씨 가문의 갈등은 직접 양씨 또는 소경과 화씨 사이에 나타날 것이다. 그 경우 화씨는 악녀의 표상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 축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화씨의 억울한 처지와 불만도 작품에 그려진 것처럼 섬세하게 표현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그러한 화씨를 교화하는 양씨와 소경의 치가 행위도 형상화될 수 없을 것이다.

선행 연구들에서 누누이 지적되었듯이 석씨와의 결혼 문제가 제기될 때까지, 화씨는 “천성이 영민하니 성미 초강하고 사랑 똥히 너기를 티산곳 티 흐야 은정이 그죽흐야 병되이 다르고 친이흐미 극진흔” 사람으로 “스스로를 일신이 복되물 갖거흐던” 것으로 그려진다. 그러던 그가 석파가 소경과 석숙란의 혼인을 주선하려는 것을 보고 석파를 칼로 찔러죽이겠다고 경고를 하고, 질욕을 하며 분함을 삭이지 못하다가 병이 들어 눕기까지 한다. 화씨의 이러한 질투, 그리고 이에 대한 석파의 분노와 하소연 등은 그

과정이 사실적으로 그려져서 독자들에게 긴장감과 아울러 동정과 연민을 불러일으킨다. 화씨의 투기심은 여성 독자층이라면 누구나에게 공감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독자들은 석파에 대한 연민을 맛보기도 한다. 기실 화씨가 석파를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석파가 양씨를 주인 섬기듯이 할 수밖에 없는, 남편도 자식도 없는 첩서모이기 때문이다. 그녀의 이러한 태도는, 스스로를 자해하거나 자식을 학대하여 남편이나 시모에게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던 것과는 현격히 다른 것이다. 소씨 가문의 욕망을 대리해서 소경과 석씨를 혼인 시켜주려던 석파가 오히려 한없는 설움을 당한 것이다. 가부장제의 피해자끼리 서로를 헐뜯는 비극적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소현성록에서 ‘심리 묘사가 주로 여성에 집중되어 나타나며, 그것이 일부다처제로 인한 질투나 혼인과 관련한 자의식의 발동, 동시에 그것을 억누르려는 초자아의 발동’ 때문이라 한 선행 연구의 지적은 적확하다 할 수 있다.<sup>24)</sup> 그러면서도 그 집중도에 있어서 미모와 덕성 그리고 가문의 위상이 떨어지는 여인들과 그렇지 않은 여인들에 있어서 편차가 나타나는 것은 세심하게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여러 여성들 가운데서 화씨에게서 내면 묘사가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까닭은 화씨를 소씨 가문의 욕망이 투사된 가부장제의 희생자로 그리려는 서술자의 의도가 은연중 투영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석씨를 맞아들이면서 나타나는 갈등은 소씨 가문의 욕망이 투영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부인 양씨를 비롯한 소씨 가문의 구성원들은 화씨의 투기를 부정적으로 보면서도, 화씨에 대한 연민의 정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 결과 화씨를 교화하여 가문의 안정을 꾀하는 것이다. 그러나, 셋째 부인 여씨를 맞아들이면서 나타나는 갈등은 여

---

24) 조혜란, 앞의 논문, 107.

씨의 색욕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씨에게는 추호도 연민의 정이 있을 수 없다. 다만 가문의 안정을 위해 교화의 대상으로 생각하지만, 교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에는 단호한 치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소경과 여씨의 결혼은 소경이 황제로부터 상태우 벼슬까지를 아울러 제수받은 다음에 이루어진다. 소경은 이제 황제로부터 총애를 받는 중신의 반열에 서게 된 것이다. 이제 결혼을 통해서 가문의 위세를 상승시킬 필요가 없어졌다. 오히려 이제 누구라도 소경과 결혼을 하는 것이 영광일 정도로 소경의 지위가 상승되었다. 이러한 소경의 지위와 인물을 탐낸 추밀사 여운이 황제의 사혼 형태를 빌어 여씨와의 혼사를 강요하는데, 소씨 가문에서는 여씨와의 혼인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

예컨대, 소경이 황제의 명을 거부할 수 없어 여씨와의 결혼을 완강히 거절하지 못하였다고 하자, 양씨는 “네 이미 양처를 두고 었디 또 취쳐하며 다시 녀시는 여귀비의 친족이라 결련호미 불가커늘 네 었디 스양튼 아니코 모호히 물러오나뇨”라고 준절히 꾸짖는다. 이러한 양씨의 태도는 석씨를 얻을 때와 현격히 다른 것이다. 여기서 양씨는 여씨로 인해 높아질 가문의 위상보다도, 그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가문의 위기를 예측하고 있다. 만일 여씨가 여귀비의 권력을 믿고 제멋대로 행동을 하게 된다면, 누구도 통제할 수 없으리란 걸 꿰뚫은 것이다. 석씨로 인한 갈등이 가문의 창달을 위해 겪어야 할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면, 여씨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은 가문을 위협할 수 있는 재앙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양씨의 예측처럼, 서술자는 여씨를 매개로 하여 소씨 가문의 위기를 형상화 한다. 이로써 다체제에 대한 향유층의 이중적 태도를 표현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서술자는 화씨의 경우와는 달리 갈등의 원인이 여씨의 욕망 때문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서술자는 여씨의 외모가 뛰어난 것

으로 설정하면서도, 그의 덕성은 사악한 것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석씨가 자신의 생각을 부덕으로 억누르고 표현하지 않거나, 화씨가 내면적 갈등을 겪으면서 말로 불만을 표출하던 것과는 달리, 여씨를 악행을 실행하는 행동적 인물로 설정한다. 여씨는 자신의 성에 대한 욕망을 행동으로 추구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화씨처럼 욕망이 억눌리면서 나타나는 분노나 억울함의 감정을 감추고 있을 여유가 없는 것이다.

예컨대 여씨는 자신의 성적 욕망의 실현을 위해 석씨의 필체를 훔내 내어 석씨를 모해하는가 하면, 석씨가 주관한 음식에 독을 넣어 양부인을 살해하려 하면서 석씨를 모해하며, 개용단을 먹고 석씨로 변하여 음란한 말을 하여 석씨를 축출하는 악행을 저지른다. 그리고 역시 개용단을 먹고 화씨로 변하여 음란한 행동을 하다 발각되기에 이른다. 이러한 여씨의 행위는 단순히 자신의 불만을 표출하는 데서 나아가 집안사람의 목숨을 해치려는 범죄의 차원으로 발전한 것이다. 만일 그것이 관철된다면 소씨 가문은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여씨의 악행은 치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들 모해 사건에서, 세 살부터 경서를 읽고 당대에 뛰어난 문장으로서 국가의 주석지신으로 추앙받는 소경은 여씨의 계략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으로 그려진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소경은 여씨의 계략에 빠져서 석부인에게 죽음을 강요하기까지 한다. 그런데 그 때마다 양부인이 계략을 감추거나 해소 완화시켜 가문의 위기를 구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그러다가, 소경이 벼들로부터 개용단 이야기를 듣고 여씨를 축출함으로써 가문이 위기를 벗어나는 것으로 그려진다.

이러한 여씨의 모해 사건의 형태는 사씨를 모해하는 교씨의 계략과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유연수와의 관계와 동일하게 보인다. 그러나, 사씨남정기와 다른 점은 이들 사건에 모부인 양씨가 개입한다는 점이다. 사

씨남정기에서는 아버지의 대리인인 고모가 아들을 따라 장사로 떠난 뒤에 교씨의 악행이 이루어진다. 그 결과 유연수가 사씨의 계교를 알아차리지 못함으로써, 가문의 위기가 극대화된다. 반면, 소현성록에서는 어머니 양씨가 개입함으로써 가문의 위기와 고난이 극단적 상황까지 이르지는 않는다. 그 결과 사씨남정기와 달리 소현성록에서는 가부장 소경의 무능이나 그로 인해 겪게 되는 여성의 수난보다는 모부인 양씨가 아들 소경에게 주는 치가의 교훈이 부각되어 나타나게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 소현성록에 설정된 두 가지 형태의 갈등에는 각각 다처제의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소씨 가문에 걸맞는 뛰어난 며느리들을 얻어 가문의 창달을 이루고 싶은 모부인 양씨의 꿈과 자의식, 그리고 다처제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가문의 위기에 대한 경계심이 투영되어 나타난다. 이를 매개로 서술자는 양씨처럼 역설적인 처지에 있는 소설 향유층의 소망과 이념적 지향을 충족시킨 것이다.

## 5. 주인공 소경의 이념과 현실 사이의 거리

소현성록의 주인공 소경은 다처제적 가족 질서 속에서 가부장으로서 가문의 안정을 유지시켜야 하는 존재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욕망을 억누르고 부인들에게 금욕적인 자세로 공평한 태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애초 다처제란 이미 가부장의 남성 중심적 욕망을 전제로 성립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소경의 금욕적 태도는 애초의 다처제의 본질과는 상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이처럼 주인공 소경이 금욕적 태도로 모든 처에게 공평함을 유지하는 것처럼 그려진 것은, 가부장으로서의 남성중심적 욕망을 통제하여 가문내적 갈등을 완화시키고 싶은 욕망이 투영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소경의 이러한 금욕적 태도는 가

문장달을 위해 다처제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모부인 양씨로 대변되는 소현성록 향유층의 편견적 이념이 투영된 관념적 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금욕적 태도란 애초 다처제의 바탕이 되는 남성적 욕망과도, 그리고 다처제의 질곡으로 인해 억압된 여성의 욕망과도 괴리된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엄격하게 표방될수록 관념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그 결과 그러한 관념적 행위는 가문 내에서 또 다른 형태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를 가부장제의 질곡을 겪으면서도 가부장제의 틀 안에서 그것의 해소를 꿈꾸는 소설 향유층의 이율배반적 욕망이 빚어낸 역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가문소설의 역설로서, 소현성록에 나타난 소경의 관념적 이념과 현실적 욕망 사이에 나타나는 거리를 읽어보기로 한다.

소경은 “위인이 즈기와 상격지 못호”라고 생각되는 화씨와 혼인을 한 후, 화씨에게는 눈도 보내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집안사람들이 화씨와 금슬이 부족한가 여겨서 석파에게 물어보라 하니, ‘소경이 지아비는 묵묵하고 여자는 정정하여 서로 희롱하고 즐거워함을 더러이 여기기 때문이라 답’한다. 이에 대해 석파가 그럴듯하지만 진정이 아닐 것이라 논박하자 “내 만일 호식호여 몸이 상호면 불회될가 호여, 밤의 혼정 후 녹운당의 가시비 신성호라 니러나더니, 셔되 창첩 더접호듯 호다 호니 쥬야 끼고 누어 썸나지 아니면 공경호미니잇가”라고 답한다. 그러자 석파는 대소하고 그 사실을 부인에게 고하니 부인이 “호히는 인중 성인이니 저의 부친과 지는 지라. 호식호여 상홀가 넘네는 업도다”고 한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소경의 관념적인 금욕적 태도를 소씨 가문의 여인들은 거짓으로 보고, 그것을 화씨와 금슬이 좋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태도로 이해한다는 점이다. 석파는 부부의 도리를 들어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소경의 말에 대해, 세객의 말처럼 그럴듯하나 거짓을 말한다

고 따진다. 그러자, 소경이 웃으면서 불효할까 해서 화씨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고 답한다. 그러자 석파는 웃음으로 답하며, 양씨는 그 말을 듣고 “인증성인”이라 칭하면서 호색하여 몸 상할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이야기했다고 한다. 여기서 호색으로 몸을 상하여 불효할까 해서 금욕을 한다는 것은, 농담 중 진담이라는 말처럼 다처제의 토대가 된 남성적 욕망의 기제를 가감 없이 드러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씨 가문의 여인들은 그 말을 웃음으로 받아 넘기거나, 인증 성인이라 칭하면서도 호색해서 몸을 상할 걱정은 없겠다는 뜻모를(?) 이야기를 한 것이다.

이처럼 소경의 관념적 태도를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양부인의 대리인이라 할 수 있는 석파는 소경에게 어울리는 석씨와의 혼인을 추천한다. 소경의 관념적인 금욕적 이념이 오히려 성적 욕망으로 이해되어 소씨 가문 내에서 새로운 갈등을 불러일으키게 된 것이다. 이러한 관념적 이념과 가부장제의 현실 사이에 나타나는 괴리 및 그로 인한 갈등 기제는 소설 향유층에게 가부장제의 질곡적 성격을 일깨워주면서도, 가부장제 현실을 수용하여 가부장제 이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음을 각성시키는 상반된 기능을 수행한다.

양씨가 인정하듯이 인물이 떨어지는 화씨가 인물이 뛰어난 소씨를 재취로 맞아들이려는 논의가 진행되는 것을 알고 투기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애초 서술자가 인물과 덕성을 결합시키는 것은 투기심의 발생 기제를 정확히 반영한 것이다. 석씨처럼 누구나가 흠모하는 미모를 지닌 여자라면 투기심을 가질 이유가 없을 것이다. 투기심이란 애초 남성 중심적 여성관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이다. 양부인조차 화씨의 투기심이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가부장제의 유지를 위해서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다. 존재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으면서도 그 존재를 인정해서는 안 되는 아이러니가 나타난 것이다. 그 결과 가부장제 이념을 매개

로 해서 그것을 해소하려는 역설이 나타나게 된다. 예컨대, 화씨와의 갈등 대상이 석씨에서부터 소경으로 그리고 양씨로까지 확대되는 과정은, 그녀가 가부장제의 질곡의 근원을 자각해 나가는 과정에 대응되는 것이며, 동시에 자신의 투기심을 포기하여 남편 소경과 양부인의 교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음을 깨달아 나가는 과정에 대응되는 것이다. 이는 소설 향유층의 가부장제 현실에 대한 비극적 체념 심리를 반영한 것이다.

한편, 서술자는 석씨와의 혼인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호광에서 발생한 윤소저와의 조우 사건을 통해 소경의 금욕적 태도를 더욱 부각시킨다. 호광을 순무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루어지는 윤소저와의 해후에서 서술자는 애써 윤소저의 경국지색을 강조하고<sup>25)</sup> 또 의도적으로 비밀스런 시간과 공간을 설정한 뒤에, 소경이 초연히 그녀를 돌려보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소경이 얼마나 색에 초연한 존재인가를 부각시킨 것이다. 또, “당초 신원코즈 어스를 보미 은덕이 중하여 평성 우러는 뜻이 잇”었다고<sup>26)</sup> 하여 윤소저가 소경을 남성으로 생각했는데도, 소경은 윤소저와 형매의 의를 맺은 뒤 단정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그녀를 경사로 데려갔다고 함으로써 소경의 금욕적 이념을 강조한다.

서술자가 이처럼 소경의 금욕적 태도를 강조하는 까닭은 석소저와의

25) 희미헌 월하의 일위 소년 녀지 섯다가 성의 문 열물 보고 양연이 방중의 드러 어스를 향하여 만복함을 일컷고 눈물을 흘리니, 성이 눈을 드러 보니, 그 녀지 살빛촌 맑은 옥같고 아미는 버들 꺾타며 낭목은 चु티 흐르는 듯 구름 가튼 머리를 헛틀고 남누흔 의상을 넘어서니 이나 달이 근심하고 고지 시름 하는듯 연연 아릿답고 표묘 쇠락하여 경성 경국지색과 폐월슈화지티니 염염흔 용피 지분의 취식함을 더러이 녀겨 관치 축희의 바이는지라 (소현성록, 권1)

26) 윤시 당초 신원코즈 어스를 보미 은덕이 중하여 평성 우러는 뜻이 잇더니, 어시 뽉뽉 정디하여 결약남미하미 깃부고 의혹하여 슈십일 동행하니, 어시의 거동이 가지록 정디하여 침소를 떨니하며 언어슈작할 적이 만호디, 맞춤니 눈을 늦초아 보지 아니코 웃고 말습이 활발할 적이 업스니, 탄복하여 진짓 하헤미즈의 늪라, 십여세 처신이 어츠 정디하니 가히 현인군즈라 하더라.(소현성록 권1)

혼인이 소경의 성적 욕망 때문이 아님을 부각시키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소경은 석씨에 대해서도 지나치리만큼 엄정한 태도를 보인다. 석씨와의 첫날밤에도 석씨 방에서 자지 않는 한편, 그녀가 어리다는 이유를 들어 합근을 하지 않아 앵혈을 그대로 남겨 둔다. 물론 이러한 소경의 태도에 대해서 태사와 같은 덕을 지닌 석씨 자신은 불평하는 마음을 드러낼 까닭이 없다. 그러나 그러한 소경의 태도는 양부인이나 석파 그리고 석씨의 친정 등 현실적 안목을 갖춘 사람이 보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터무니없이 관념적이다.

이렇게 보면 소경의 태도는 이미 석씨와의 갈등을 배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여씨의 계략에 빠져 석씨를 질책하게 되면서 본격화되어 나타난다. 여씨가 석 부인을 여러 차례 모해하는데도 소경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석씨를 멀리하거나 심지어 죽음을 강요하기까지 한다. 이러한 태도는 사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소경의 무능을 대변하는 것처럼 그려지지만, 기실 지금까지 소경이 취해온 금욕적 태도가 현실과 괴리된 관념적인 것이었음을 이야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소경의 태도는 사씨남정기에서 교씨의 색에 빠져 교씨의 모해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유연수의 태도와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서술자는 소경의 금욕적 태도가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음을 말한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처제적 가족 질서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을 제거하기 위해 설정된 소경의 관념적 금욕주의는 애초 다처제의 현실과 괴리되어 또 다른 형태의 갈등을 불러일으킨다. 이는 가부장제의 틀 안에서 그 질곡의 해소를 꿈꾸는 소설 향유층의 모순된 꿈을 넘어, 소현성록의 갈등을 소설적 갈등으로 남아있게 하는 현실 반영적 요소라 할 수 있다.

## 6. 결론

소현성록은 작자를 자칭하는 사람이 서문에서 “던을 지으디 공의 회노와 언시 적고 횡실이 높기로 사름으로 하여금 이 던을 보면 송연히 공경하나 빛나면 화려함이 업난고로”라고 하였듯이, 남주인공 소경의 가부장제적 이념이 이상적 형태로 구현되는 양상을 보이는 작품이다. 이념의 실현 과정에서 그의 처들과 갈등을 겪기도 하지만, 남주인공 소경은 비인간적이라 하리만치 엄격한 기준을 세워 세 처들에게 한 치의 치우침도 없이 공평한 태도를 취한다. 이를 통해 처처간의 갈등을 제거하여 가문의 안정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이를 보면 이 작품은 가부장제 이념을 전달하기 위해 창작한 소설처럼 보인다. 그러나, 다처제가 가부장인 남성의 욕망을 바탕으로 해서 성립된 가족 형태라는 점을 생각하면, 그렇게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설혹, 다처제가 가부장의 성적 욕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혼인을 통한 가문간의 연대를 확장하려는 가문창달 욕구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 할지라도, 소경의 태도는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정도이기 때문이다. 서문에서 말한바 “송연히 공경하나 빛나면 화려함이 업”다는 것은 이를 뜻하는 것이다.

이는 작품이 단순히 주인공 소경의 욕망과 이념에 초점을 맞추고 창작된 것이 아님을 뜻한다. 대신 이 작품이 앞에서 살펴본 대로 남주인공 소경에게 투영된 어머니 양씨의 소망과 이념을 바탕으로 창작된 소설임을 뜻한다. 소경의 모친 양씨는 다처제적 질서의 질곡을 몸소 체험한 여인이다. 그렇지만, 외아들 소경을 통해 가문의 유지와 창달을 이루어야 하는 양씨에게 다처제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다. 이처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다처제적 가문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

들 소경의 금욕적 태도이다. 이처럼 소현성록에 나타난 소경의 금욕적 태도에는 모부인 양씨의 소망과 이념적 편견이 투영되어 나타난다.

소현성록에 나타나는 이러한 모부인 양씨의 소망과 이념적 편견은, 가부장제적 질곡을 체험하면서도 그것을 벗어날 수 없는 사대부 부녀층의 꿈과 이념적 편견에 대응된다. 장편소설의 주 향유층인 사대부 부녀들은 가부장제의 질곡을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하면서도 가부장제적 질서를 넘어설 수 없는 현실적 상황 때문에 오히려 가부장제적 이념의 이상적 실현을 통해 질곡의 해소를 꿈꾸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녀층이 즐겨 보는 장편소설들에는 가부장제로 인한 갈등이 형상화 되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서술자가 당대 사회의 이념적 편견을 반영하여 가부장제 이념을 표방하는 역설이 나타나는 것이다.

### 참고문헌

- 김경미, 「주자가례의 정착과 소현성록에 나타난 혼례의 양상」, 『한국고전연구』 13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6, 5-27쪽.
- 문용식, 「소현성록의 인물 형상과 갈등의 의미」, 『한국학 논집』 31, 한양대 국학연구소, 1997, 99-118쪽.
- 박영희, 「소현성록 연작 연구」, 이화대학 박사논문, 1994, 1-25쪽.
- 박영희, 「소현성록에 나타난 공주훈의 의미」, 『한국고전연구』 12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5, 5-34쪽.
- 백순철, 「소현성록의 여성들」, 『여성문학연구』 창간호, 한국여성문학회, 1999, 127-154쪽.
- 서경희, 「소현성록의 석과 연구」, 『한국고전연구』 12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5, 69-98쪽.
- 양민정, 「소현성록에 나타난 여가장의 역할과 사회적 의미」, 『외국문화연구』 12, 한국외대, 외국문학연구소, 2002, 101-125쪽.
- 이주영, 「소현성록 인물형상의 변화와 의미-규장각 소장 21장본을 중심으로」, 『국어교육』 98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98.

- 임치균, 『조선조 대장편 소설 연구』, 태학사, 1996, 43-242쪽.
- 임치균, 「소현성록에 나타난 혼인의 양상과 의미」, 『한국고전연구』 13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6, 29-47쪽.
- 장시광, 「소씨삼대록의 여성반동인물 연구」, 『한국고전소설과 여성인물』, 보고서, 2006.
- 전성운, 「소현성록의 성적 표현 방식」, 고소설학회 70차 정기학술대회 발표 요지집, 2005. 7, 1-11쪽.
- 정선희, 「소현성록 연작의 남성인물 고찰」, 『한국고전연구』 12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5, 37-66쪽.
- 정창권, 「소현성록의 여성주의적 성격과 의의-장편 규방소설의 형성과 관련하여」, 『고소설연구』 4집, 1998, 293-328쪽.
- 조광국, 「소현성록의 벌열 성향에 관한 고찰」, 『은지논총』 7, 2001, 87-113쪽.
- 조혜란, 「소현성록 연작의 서술과 서사적 지향」, 『한국고전연구』 13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6, 91-126쪽.
- 지연숙, 「소현성록의 주변과 그 자장」, 『한국문학연구』 4집,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한국문화연구소, 2003, 29-63쪽.
- 지연숙, 「소현성록의 공간 구성과 역사 인식」, 『한국고전연구』 13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6, 49-87쪽.
- 최기숙, 『17세기 장편소설 연구』, 월인, 1999, 1-480쪽.

K C I

ABSTRACT

Narrative Perspective and Ideological Prejudice of *〈So Hyunseong Rok〉*

Park, Il-Yong

*〈So Hyunseong Rok〉* had been written popularly, so we can hardly read the idea which writer intended. Because the writer wrote it correspond to the request of the reader. So some researcher had misunderstood these problems. And there had been opposite opinions about the theme of *〈So Hyunseong Rok〉*. Some researcher asserted that its theme has related with patriarchal ideology, and another researcher asserted that its theme related with feminism. But in *〈So Hyunseong Rok〉* the writer narrate the story correspond to the consciousness of Mrs. So who is the mother of the hero So Kyung. And As She is a widow, she hope his son to recover his familial honors, and to do familial piety ideally. So in *〈So Hyunseong Rok〉* the character of hero became typical. He leads an ideal ascetic life. And he has ideal capability. And he solve the problems between his wives successfully. So it seems the writer to propagate the patriarchal system, but in fact his perspective is correspond to female readers hope.

**Key Words** *〈So Hyunseong Rok〉*, *〈Sossi-Samdae-Rok〉*, Ideological prejudice, paradoxical hope, patriarchal system

논문투고일 : 2006. 11. 10  
심사완료일 : 2006. 11. 22  
게재확정일 : 2006. 12. 1